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5>

청중의 수준에 맞춘 ‘눈높이 법문’

(720호 이어서) 다시 말해 소승(小乘) 방등(方等) 반야(般若) 등 세 가지 교법에 한 주하여 새 세계로 옮겨가지 못하는 흠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회삼귀일(會三歸一), 즉 이전에 설하셨던 세 가지 교법을 회통하여 하나인 일승(一乘)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곧 다섯째 법화열반시(法華涅槃時)로서 법화부(法華部)와 열반부(涅槃部)의 경전이 여기에 속하며, 마지막 8년 간에 걸쳐 설하셨다.

다음 공자(孔子)의 오사비유(五事譬喻)와 오시교(五時教)를 대조(對照)한다 함은 <법화경> ‘신해품(信解品)’에 이르시기를 어느 부요(富饒)로운 노장자(老長者)에게 오직 늦게 본 의아를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철들기 전의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로서 이를 찾듯 공자경악(窮子驚愕) 화엄시(華嚴時)라 했다.

아버지는 다시 집사(執事)로 하여금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공자에게 접근하여 “야 이놈아, 어딜 가면 밥을 그냥 주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어디 계속 있더냐. 그런데 이 집은 일이 많아서 쇠뿔만 쳐내는 데도 여럿이 든다. 그런데 요즘 한 놈이 빠졌으니, 너 같이 가서 일하자. 찬밥덤이는 실컷 얻어먹을 것이다.” 하니, 공자는 “종소.” 하고 따라와 열심히 쇠뿔을 치우고 겨우 찬밥 세 끼니를 얻어먹는다. 천태(天台)는 이 대목을 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신 <화엄경>의 말씀에 놀라 달아나서 겨우 착한 일 하나에 복 하나 식으로 인과법문을 설하신 아함부(阿含部)를 만드는 성문

합장 · 공경 · 간결한 여쭙으로 법문 시작 상수제자 비롯한 천룡 · 아차등도 ‘해당근기’

다. 아무런 생활대책도 없는데 속절없이 거지가 되어 잔빠가 굶어간다. 한편 이들을 잃은 장자는 오직 아들 찾아 한평생을 바친다. 어디를 막론하고 아들이 갈만한 곳이면 가서 울먹을 치고 기다린다.

그러던 어느 날 문간채에 얼핏 나타나서 밥을 빌어가지고 돌아서는 아이를 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건만, 얼른 자기의 아들 이란 것을 알아보고 사람을 풀어 데려온다. 그러나 이 공자에게는 심각(深刻)한 상황(狀況)이 있었다. 타고난 팔자가 거지인데 이 국왕(國王)의 위세 같은 집 노인이 자기를 볼렀다는 것 그 자체가 부답스러운 것이다.

더구나 내가 내 아들이 분명하다는 내용으로 말을 하는 것이 더욱 불안했다. 이 영감이 나를 불들어다 놓고 자기 아들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자기를 해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시달리다 끝내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며 도망간다. 천태(天台)는 이 대목을 첫째 공자(孔子)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비유(捨父逃逝)라 불렀다. 그는 이 대목을 부처님의 첫 설법인 <화엄경>법문을 듣고 귀먹은 것 같을 뿐만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고 도망친 그날의 성문(聲聞)들을 비유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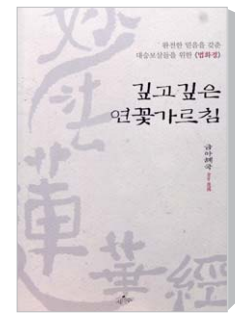
들을 비유한 것으로서 둘째 제분정가(除糞定價) 녹원시(鹿苑時)라 했다.

공자(孔子)가 차츰 길이 들어 주인의 얼굴도 기억하고, 안채에 심부름으로도 출입하는 등, 집 안팎을 드나들기에 불편함이 없게 되니, 천태는 이를 방등부에 들어와서 가급가급 중생이 누구나 부처라는 요의 말씀을 들어도 과히 놀라지 않게 된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서 셋째 출입무난(出入無難) 방등시(方等時)라 했다.

공자는 장자의 의도대로 차츰 길이 잘 들어서 장자의 수양아들이 되어, 집안의 크고 작은 업무를 도맡아서 거뜬히 해내게 된다. 그래서 남들이 모두 그를 다음 주인으로 믿고 따랐고 장자도 그 부분을 힘주어 보장해 준다. 그래서 그 집의 재산상황이나 거래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환하게 안다. 천태는 이를 일러 넷째 반야시(般若時)에 이르러 삼승중(三乘中) 최정상(最頂上)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아함(阿含)과 상대되는 우월개념(優越概念)일뿐이요, 절대개념이 아니라는 뜻인 넷째 점지보물(漸次寶物) 반야시(般若時)라 했다. 다시 말해 보물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알뿐 아직 차지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다. **봉선사 조실**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해국스님 지음 | 사유수 펴냄 | 1만3000원

중생이 모두 부처인데 뭘 그리 고민해?



보통 <법화경>이라 부르는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이 ‘공(空)사상’을 설한 반야부 다음으로 설한 경전이다. 교상판석에서는 <열반경>과 함께 부처님 최후의 설법으로 본다.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이다. 중요한 만큼 가깝지도 않다. 평생 <법화경>만 연구하는 학자도 있고 하나의 종파를 형성해 이 경전을 받드는 경우도 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 중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 스님은 “어린시절 <법화경>을 처음 배울 때는 그 심오한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황당하다고까지 생각 했었다”고 고백하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중생이 모두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 오직 이 일대사 인연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접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신심이 우러나왔다”고 말했다.

그런 신심을 바탕으로 해국 스님이 펼친 <법화경> 강의 내용을 책으로 묶었다.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은 해국 스님이 선사(禪師)의 안목으로 풀이한 <법화경>이다. 해국 스님은 책의 서문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춘원 이광수가 <법화경>

에 매료되어 한글로 번역하려다가 끝내 포기 했다는 일화가 실감났다”고 밝혔다. 그래도 강의는 매우 자상하다. 우리의 일상 언어로 깊고 깊은 가르침을 풀어내고 있다.

경계 한파로 봄 속의 겨울을 지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처이며 부처인 당신을 공경한다”는 해국 스님의 우렁찬 법문은 큰 위로와 희망으로 다가간다. 본문의 한 토막을 맛보자.

“나무는 겨울이 오면 낙엽을 다 떨어뜨려 추위를 이겨 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앙상해 보이지만 그렇게 이겨낸 덕분에 봄에 파란 싹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닥친 어려운 일이나 참기 힘든 일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유능한 선장이 되려면 바람이 세고 파도가 거친 바다에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할 곳에서 오뉴월 말뚨알 늘어지듯 축 늘어져 있다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어려움을 잘 이겨 내시고 그것을 화두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임연태 기자 imian1@hanmail.net

내 마음의 소 찾기 잘돼?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스님 지음 | 운주사 펴냄 | 9000원

기축년(己丑年) 소의 해, 마음의 소를 찾아 길들여 보자고 다짐하며 시작한 기축년도 벌써 두 달이나 지나갔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소 발자국을 보거나 했는가? 아니 고삐를 들고 떠나거나 한 것일까? 지금쯤 불소식을 들으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다. 세상이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기에 더욱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 보는데 가장 적절한 길잡이가 바로 ‘십우도’다.

하동 쌍계사 강사 월호 스님이 ‘십우도’ 열장의 그림과 그림에 붙은 계송을 아주 자상하게 풀이했다.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는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소를 찾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소를 만날 수 없고 길들일 수도 없다. 불교는 행동의 종교다. ‘소가 어디쯤 있더라’는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오직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소를 찾아야 하고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임연태 기자**

‘행복’으로 안내하는 법문



마음공부 고산스님 의 법문 휴먼 앤 북스 펴냄 | 1만 5000원

불법난(佛法難得)이라 했지만, 불법을 만났으니 그 자세한 가르침을 얻지 못하면 허당이다. 참선을 하던 경전을 공부하던 불법의 알고 깊은 가르침을 두루 배우고 익혀 실천하는 것이 불자에게 살아 있는 행복이 될 것이다.

그 살아 있는 행복을 전해주는 현장이 바로 법회다. 큰스님들의 법문을 경청할 수 있는 행복공간을 많이 찾아다닐수록 가슴이 벅차게 된다. 미디어 시대, 블로그텔레비전(btn)을 통해 큰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블로그텔레비전이 큰스님들의 법문 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유다. 그 법문 시간에 들려주었던 큰스님들의 주옥같은 법문들이 영주처럼 꿰어져 두 번째 책이 되었다. <마음공부>에는 고산 스님을 비롯해 효산, 월서, 정무, 도영, 무여 스님 등 15분의 사자후가 실렸다.

책에서 큰스님들은 한결같이 자성을 밝히는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정해를 닦아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지금 우리 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생생한 법문들이다. **임연태 기자**

아이에게 ‘부처님 전생’ 보여주라



지혜가 속속 자라는 명상동화20 다르마차리 나자라가 wlda 임희근 옮김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5천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자타카)가 동화로 꾸며졌다. 그냥 옛날이야기 식의 동화가 아니다. 지혜를 길러주는 명상동화다. 저자는 영국 BBC 라디오에 출연하여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국인들에게 크게 주목 받은 바 있다.

심리치료사인 영국 스님이 쓴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는 뭐가 다를까? 부처님의 전생이야기가 갖는 교육적인 메시지들을 보다 감동적으로 꾸미고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지혜를 배우게 한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들려주라고 권한다. 신비하고 아름다우면서 뭔가 배울 것이 있는 이야기를 부모의 육성을 통해 전달 받을 때 아이들 마음속 지혜의 나무는 더 싱싱하게 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서두에 책을 읽어 줄 부모들이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다. 읽어주기 전에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 읽고 대화를 이끌어 가는 방법, 명상과 시각화를 적절하게 지도하는 방법 등. 이 책에서는 부드러운 조명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책을 읽어주라고 권한다. 책 읽어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공부’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책의 뒷부분에서는 자비명상, 무지개 명상, 호흡명상 등 아이들이 하면 좋은 명상법도 소개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머무리	법정	문학의 숲
2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광명진언기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5	인과경	현담	선
6	답답하면 물러라	법륜	정토
7	스님 마음이 불평해요	법륜	정토
8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9	이발로키테수외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10	행복하기 행복 전하기	법륜	정토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을 열었습니다 www.hyunbul.com

Human & Books Tel : 02-6327-3535 ~ 7 | E-mail : hbooks@empal.com

지혜로 풀어 쓴 불교판 이솝우화

불교TV 오심 스님의 명쾌하고 재미있는 백유경 해설!

백유경 이야기

오심 스님 지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이치와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

백유경의 무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이 세상이다. 책 속의 어리석은 주인공들은 내 부모 형제, 이웃과 친구,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엄숙하고 진중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데 반해 이 경전은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를 직접 지적하기보다는 해학과 유머로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이 책은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과 ‘혹시 나는 주인공들처럼 어리석은 것을 행한 적이 없나?’ 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나도 어리석은 일을 한 적이 있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자아반성(自我反省)’을 하게 한다. 해학과 배꼽 잡는 위트가 살아 있는 이 책을 통해 출가자나 세속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불교의 진수를 웃는 가운데서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값 13,500원 | 4도 컬러 400쪽